

정신간호학 분야의 질적 연구논문분석 - 최근 10년 간 정신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

남 경 아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Nam, Kyoung A

Division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rends in qualitative research articles that from 2004 to 2013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and to raise issues for the evolution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Descriptive statistics and qualitative evaluation were used in analysis of fifty qualitative studies. The focus was on research methodology and techniques to establish validity of the study. **Results:** Most frequently used methodological orientation was phenomenology (48.0%) and the analytic method was Colaizzi's. Nearly two-thirds of studies focused on general population or psychiatric patients dwelling in community settings. There were no comments on validity in fifteen studies, and in the rest of studies, the description about the techniques to enhance the validity of study were not elaborated. **Conclusion:** Although qualitative studies in health care environment have increased recently, the proportion of qualitative studies compared with quantitative studies was relatively low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In order to make qualitative studies useful to nursing research, practice,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authors employ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hould exert efforts to enhance validity of studies.

Key Words: Qualitative research, Psychiatric nursing, Trend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92년에 창간된 정신간호학회지는 발간된 지 20년이 지

났으며, 발행이 완료된 2013년도까지 정신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편수는 742편에 이른다. 정신간호학회지의 경우 한국 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발표된 최근 2년간 자기인용을 제외한 보정영향력 지수는 2011년 기준, 국내 간호학술지 중 SCIE 학술지인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을

주요어: 질적 연구, 정신간호, 정신건강, 경향

Corresponding author: Nam, Kyoung A

Division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1 Hallymdaehak-gil, Chuncheon, 200-702, Korea.

Tel: +82-33-248-2717, Fax: +82-33-248-2734, E-mail: namka@hallym.ac.kr

- 이 논문은 2014년도 한림대학교 교비 학술연구비(HRF-201410-021)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Hallym University Research Fund, 2014(HRF-201410-021).

Received: Oct 10, 2014 | Revised: Nov 24, 2014 | Accepted: Dec 12, 2014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제외하고 가장 높다. 이는 정신간호학회지가 내용적, 형식적 측면에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이 부여되는 이유이기도 하며, 정신간호학회지의 질적 수준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략 중의 하나로 최근 논문의 실태와 경향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작업들은 드물게나마 양적 연구 논문에 대해서는 이루어진 바 있지만 질적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는 현재까지 부재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교육학 등의 몇몇 분야에서 질적 연구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기 시작하였다[1]. 자연현상이나 물질과는 달리 경계가 불분명하고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인간의 행동과 태도에 스민 고유하고 복잡한 의미는 실증주의 패러다임에 기반한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탐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해석과 추론을 통해 탐색될 때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2], 인간현상을 탐구하는 학문분야나 건강 관련분야에서 자연주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질적 연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2-4]이다.

국내의 간호학 분야에서는 과학적 지식체 형성에 있어서 양적 연구가 지녔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질적 연구가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5]. 정신간호학회지에서는 질적 연구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1993년 2권에 질적 자료가 제시된 2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또한 같은 권에 게재된 ‘간호현상의 본질과 현상학적 연구’라는 종설에서 직접적으로 질적 연구라는 용어가 언급되었고, 이후 1994년에 ‘학생들이 정신간호학 실습 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라는 연구논문을 시작으로 정신간호학회지에 질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논문들이 게재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약 20여년에 걸친 질적 연구는 다양한 간호현상들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으로써 간호학 지식체 정립에 기여한 바가 지대하다. 더욱이 양적 측정이 쉽지 않은 복잡한 인간의 정신세계와 정신건강과 관련된 현상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정신간호학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정신간호학 학문 발전에 질적 연구방법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정신간호학회지에 게재되는 질적 연구의 비중이나 그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크게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질적 연구가 본질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도구로 하고 있고[6], 대개의 저자나 독자들에게 방법론이 복잡하고 익숙하지 않아 논문결과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활용하는 데 논리적인 기반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외의 경우에도 건강분야의 쟁점을 다루는 질적 연구결과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3], 질적 연구는 근거중심실무 패러다임의 핵심이 되는 변형적 지식을 생성하는데 유용하므로, 이를 근거중심실무에 통합하기 위한 노력으로 메타분석[4]이 이루어지는 등 발전적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의 정신간호분야에서 이루어진 질적 연구의 실태와 그 중요성을 재고함으로써 정신간호학의 학문과 실무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주제의 탐색과 구미에서 탄생하여 다른 학문에서 적용되어 온 질적 연구방법론을 정신간호학 분야에서 어떻게 정착, 진화시킬 것인지, 이미 생산된 많은 질적 연구결과들을 어떻게 유용한 지식체로 변형시킬 것인지 등에 대해 숙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간호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질적 연구의 현 실태와 경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신간호의 연구, 실무, 행정, 교육에 유용한 질적 연구결과들의 생성을 위한 방법론의 활용과 관련 쟁점을 다룸으로써 질적 연구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10년 간 정신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질적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주제와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경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질적 연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질적 연구논문의 주제와 연구목적, 철학적 입장에 대한 양상을 파악한다.
- 질적 연구논문에서 활용한 연구방법론과 분석방법의 활용분포를 파악한다.
- 질적 연구논문에서 활용한 표본과 자료수집방법의 특성을 파악한다.
- 질적 연구의 진실성 확보전략의 실태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최근 10년 간 정신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질적 연구 논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신간호학회지의 원고 구성 요소와 Sandelowski와 Barroso[7]의 질적 연구 분석 틀의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분석한 서술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발간된 40권의 정신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질적 자료를 분석한 연구논문 50편이며, 개념분석을 실시한 논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을 수집하기 위하여 먼저 정신간호학회 학회지 논문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기간에 출판된 논문의 초록을 모두 검색하였다. 초록의 방법론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제시한 경우는 해당되는 원문을 출력하였고, 논문제목은 제시되어 있으나 초록이나 원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학술정보 검색사이트를 통해 논문제목으로 논문을 검색한 후 질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논문을 추출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 분석 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 분석틀은 Sandelowski와 Barroso[7]의 질적 연구 분석틀을 주로 활용하여 구성하였는데, 이는 간호학자가 질적 연구의 메타분석을 위해 개발한 가장 최근의 틀로서 연구제목, 연구문제, 연구목적, 이론적 지향성, 방법론적 지향성, 표본 추출방법,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방법, 진실성 확보전략, 주요 결과, 연구의 의의, 출판물 형태, 검색방법, 재정지원 정보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간호학회지의 원고 구성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연구제목부터 진실성 확보전략까지의 요소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Table 1). 수집된 자료 중 양적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최소값, 최대값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연구주제, 목적, 철학적 입장에 대한 기술 부분은 정성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제목(주제), 연구목적과 철학적 입장

연구제목(주제), 연구목적, 철학적 입장은 양적 자료로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와 내용분석, 주제 분석을 사용한 논문들의 연구제목에는 ‘경험’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경우가 많았다.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은 ‘적용’, ‘과정’, ‘회복’, ‘대처’ 등 과정적인 요소를 포함한 용어들이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 Q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들은 2편을 제외하고 연구제목에 방법론을 제시하였는데, 제목에 방법론의 제시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적 연구방법론의 제목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주요어를 통해 연구주제를 살펴 본 결과 2004~2008년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HIV 감염인, 동성애자, 성폭력 피해자, 자살 사별자 등 소수자이면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대상자들의 삶의 경험과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가 많았고, 2009~2013년에는 대상 집단과 주제가 다양해졌으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등의 경험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연구참여자를 기준으로 볼 때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주제는 정신질환자의 환경 경험, 억제 경험, 흡연 경험을 탐색한 연구, 알코올 의존 환자의 알코올 인식이나 음주 경험을 탐색한 연구, 만성 정신장애인의 회복, 재활, 이민 경험, 정신의료서비스 선호도, 결혼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 탐색한 연구가 있었다. 다음으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스, 학과적응, 정신질환 인식 등의 연구와 정신보건 관련 의료인들의 스트레스, 소진 등을 탐색한 연구로 주로 전문직인으로서의 스트레스나 적응에 관한 주제가 많았다. 가족의 돌봄 경험과 관련된 연구도 7편이 발표

Table 1. A Generic Guide for Detailing Studies

Categories	Items
Introd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itle of study • Research purpose (s)/question (s) • A priori theoretical orientation to, assumptions about the target phenomenon
Methodolo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thodological orientation (name and type; specify with citation provided) • Data analysis techniques (type; specify with citation provided) • Sample: type, size • Data collection methods or sources (for each one, indicate kind; specify with citations provided) • Techniques to ensure validation/trustworthiness : terminology, type, number of techniques being used, citations

되었는데 정신질환자 부모의 오명, 에이즈 감염인 간병 경험, 치매가족 돌봄경험,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의 경험 등이 탐색되었다. 제외국민의 이민경험, 결혼이주여성의 경험, 북한이탈주민의 경험 등 문화이입에 관한 연구를 시행한 경우가 6편으로 유사주제로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외 성폭력 피해 경험이나 남성 동성에 성정체성 발달과정 탐색, 자살시도자 심리적 고통, 미혼모의 희망체현, 구급대원의 소진경험, 정신보건센터 자원봉사자의 경험, 중년의 위기 경험, 분노나 화병에 관한 탐색, 만성질환자의 대처, 음주운전자 경험, 대학생의 음주 관련 성적 행동 등 다양한 대상자들의 삶의 경험들을 주제로 탐색하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연구목적의 기술에는 현상학 연구의 경우 대부분 ‘경험 이해’, ‘의미 이해’, ‘본질 탐색’, ‘체험 구조 확인’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았고, 철학적 입장이거나 분석방법에 상관없이 거의 유사하게 기술되었다. 근거이론방법 연구에서는 대부분 ‘경험 이해’와 ‘이론 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반해 현상학 연구의 연구목적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Q 방법론 연구에서는 모든 논문에서 ‘유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연구목적은 유형을 구분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내용분석이나 문제중심 분석방법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원인분석’이라든가, ‘동기’, ‘이점’, ‘손실’, ‘요구분석’ 등 비교적 한정적인 목적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의 주제나 목적에 부합되는 철학적 입장에 대해 연구의 필요성이나 연구방법 부분에서 기술한 논문은 9편이었다. 그 외 논문에서는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등의 간략한 서술로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고, 철학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특히 현상학의 경우 다수의 분석방법들이 활용되었지만 각각 어떤 목적과 철학적 입장으로 해당 분석방법이 채택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2. 질적 연구방법론과 분석방법의 활용 분포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0년 간 정신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질적 연구 논문을 살펴 본 결과 2004~2008년 사이에 게재된 논문은 24편이며, 2009~2013년 사이에 게재된 논문은 26편으로 총 5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연구방법론에 따라 구분해보면 ‘현상학 연구’의 경우 2004~2008년에 10편, 2009~2013년에 14편으로 총 24편(48.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거이론방법’은 각 6편, 4편으로 총 10편(20.0%), ‘Q 방법론’은 3편, 4편으로 총 7편(14.0%), ‘내용분석’의 경우

1편, 3편으로 총 4편(8.0%), ‘주제분석’은 1편, 1편으로 총 2편(4.0%), ‘문제중심분석방법’의 경우 2편(4.0%), ‘혼합연구’의 경우 1편(2.0%)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방법으로는 현상학 연구의 경우 Colaizzi 분석방법이 가장 많았고, 근거이론방법에서는 Strauss와 Corbin 분석방법이 가장 많았다(Table 2).

3. 표본과 자료수집

분석대상 논문의 표본과 자료수집방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참여자의 유형, 참여자 수, 자료수집방법, 심층면접 시간, 심층면접 횟수, 자료수집기간을 분석한 결과(Table 3), 먼저 참여자의 유형은 ‘일반인’인 경우가 16편(32.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정신장애인’이 15편(30.0%)이었으며, 치매노인, HIV 환자 등의 ‘돌봄제공자’가 7편(14.0%), ‘간호학생’ 7편(14.0%), ‘외국인’ 3편(6.0%), ‘건강전문가’ 2편(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수는 최소 3명에서 최대 85명으로 ‘10명에서 19명’ 사이가 21편(42.0%)으로 가장 많았고, ‘9명 이하’인 경우가 17편(34.0%)으로 대부분 20명 미만의 참여자가 연구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자료수집방법은 ‘면담’만을 사용한 경우가 35편(70.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초점집단’ 4편(8.0%), ‘글쓰기’, ‘질문지’가 각각 2편(4.0%)으로 나타났고, ‘면담과 초점집단’을 사용한 경우가 3편(6.0%), ‘면담과 질문지’가 2편(4.0%), ‘면담과 글쓰기’가 1편(2.0%), ‘면담, 초점집단과 참여관찰’이 1편(2.0%)인 것으로 나타났다. 42편(84.0%)의 논문에서 자료수집방법으로 면담을 사용하였는데 소요된 시간과 횟수는 대부분 범위로 기술되어 있어 최대값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면담시간은 최소 30분에서 최대 360분으로 나타났고 ‘61~120분’ 사이가 23편(54.7%)으로 가장 많았다. 면담의 횟수는 최소 1회에서 최대 10회 사이였고, ‘2~3회’ 실시한 경우가 16편(38.1%)으로 가장 많았다. 면담을 시행하였으나 면담시간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는 9편(21.4%), 면담횟수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는 13편(3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수집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51개월까지로 나타났고, ‘2~6개월’이 16편(32.0%), ‘7~12개월’이 10편(20.0%), ‘13개월 이상’인 경우가 8편(1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수집기간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는 13편(26.0%)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의 진실성 확보전략

연구의 진실성을 표현하기 위한 용어는 ‘타당도와 신뢰도’

Table 2. Methodological Orientation and Data Analysis Techniques

(N=50)

Methodology	2004~2008	2009~2013	Total n (%)
Phenomenology	10	14	24 (48,0)
Colaizzi (1978)	5	8	
Giorgi (1985)	2	1	
van Manen (1990)	2	1	
Parse	0	3	
Merleau-Ponty (1962)	0	1	
Van Kaam	1	0	
Grounded theory	6	4	10 (20,0)
Strauss & Corbin (1990, 1998)	4	4	
Unidentifiable	2	0	
Q methodology	3	4	7 (14,0)
Content analysis	1	3	4 (8,0)
Woods, Priest, & Roberts (2002)	0	1	
Downe-Wamboldt (1992)	0	1	
Waltz, Strickland, & Lenz (1984)	1	0	
Unidentifiable	0	1	
Thematic analysis	1	1	2 (4,0)
Braun & Clark (2006)	0	1	
Unidentifiable	1	0	
Problem oriented analysis	2	0	2 (4,0)
Fullilove (2001)	2	0	
Mixed	0	1	1 (2,0)
Downe-Wamboldt (1992)	0	1	
Total	23	27	50 (100,0)

와 ‘타당도’가 가장 많았고 각각 11편(22.0%)이었다. ‘엄정성’을 사용한 경우는 6편(12.0%), ‘진실성’은 2편(4.0%), ‘신뢰도’는 1편(2.0%)이었다. 이외 특정 용어 없이 ‘혼돈’되게 사용한 경우가 4편(8.0%)이었고, 연구의 진실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15편(30.0%)이었다.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에서는 ‘참여자 확인’과 ‘교수 또는 전문가 의뢰’가 각각 22편(44.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선입견 배제’가 12편(24.0%), ‘동료와의 검토’가 11편(22.0%), ‘절차 준수’가 10편(20.0%), ‘참여자와의 관계형성’과 ‘인용구 제시’가 각각 5편(10.0%)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참여자와 자료원’과 ‘면담의 녹취’가 각각 4편(8.0%)으로 나타났다. 진실성 확보를 위해 사용된 전략의 수는 ‘없음’이 15편(30.0%), ‘1개’가 6편(12.0%), 2개 이상인 경우가 29편(5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성 확보를 확인하기 위한 준거의 근거는 언급되지 않은 경우가 38편(76.0%)으로 가장 많았고, ‘Lincoln과 Guba (1985) 또는 Guba와 Lincoln (1989)’이 7편(14.0%), ‘Maxwell (1996)’과 ‘Sandelowski (2000)’가 각 1편(2.0%)이었

으며, 본문에 준거가 제시되어 있으나 근거 문헌의 연도가 없거나, 문헌이 참고문헌목록에 없는 등 ‘확인불가능’인 경우가 3편(6.0%)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지난 10년 간 정신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질적 연구는 전체 게재 논문 440편 중 50편으로 11.4%를 차지하였다. 이는 한국교육학회지의 논문분석[8]에서 혼합연구를 포함한 질적 연구가 31.3%, 성인간호학회지에 최근 10년 간 게재된 질적 연구의 전체 게재 논문 대비 비중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58편이라고 보고한 결과[5]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미국의 저명간호학술지인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에 2013년도 게재된 원저 36편 중 질적 연구는 16편이었으며, 이는 정신간호영역에서 질적 연구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가늠되지만 이에 비해 정신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질적 연구의 비중은 낮았다.

Table 3. Sampling and Data Collection

(N=50)

Variables	Categories	n (%)	Min	Max
Sample type	General adult	16 (32,0)		
	Psychiatric patient	15 (30,0)		
	Care-giver	7 (14,0)		
	Nursing student	7 (14,0)		
	Foreigner	3 (6,0)		
	Health professional	2 (4,0)		
Sample size	≤ 9	17 (34,0)	3	85
	10~19	21 (42,0)		
	20~29	4 (8,0)		
	≥ 30	8 (16,0)		
Data collection methods	Individual interview	35 (70,0)		
	Focus group	4 (8,0)		
	Writing	2 (4,0)		
	Questionnaire	2 (4,0)		
	Interview & focus group	3 (6,0)		
	Interview & questionnaire	2 (4,0)		
	Interview & writing	1 (2,0)		
	Interview, focus group & participatory observation	1 (2,0)		
Time for interview (minute) (n=42)	≤ 60	2 (4,8)	30	360
	61~120	23 (54,7)		
	121~180	6 (14,3)		
	≥ 181	2 (4,8)		
	Not presented	9 (21,4)		
No. of interview (n=42)	≤ 1	4 (9,6)	1	10
	2~3	16 (38,1)		
	4~5	6 (14,3)		
	≥ 6	3 (7,1)		
	Not presented	13 (30,9)		
Period of data collection (month)	≤ 1	3 (6,0)	1	51
	2~6	16 (32,0)		
	7~12	10 (20,0)		
	≥ 13	8 (16,0)		
	Not presented	13 (26,0)		

게재 논문의 연구대상자는 일반인으로부터 정신장애인가 지 포함되었고, 연구주제 또한 정신간호학의 주요개념을 반영하고 있었다. 특히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증상의 경험이나 질환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경험, 결혼에 대한 인식, 회복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시행되었다. 다만 대상자 중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을 제외하고는 특정 진단명 없이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경우가 많아 좀 더 다양한 정신질환자들의 경험을 탐색하는 연구주제가 발굴될 할 필요가 있겠다. 2013년도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에 게재된 질적 연구의 경우 청소년 조현병 환자는 물론 우울장애, 불안장애, 섭식장애 환자나 아동 성폭력 피해자 등 다양한 연구대상자를 포함하고 있고, 그 주제 또한 질병의 증상을 포함하여 질병으로 인한 건강불평등, 환자의 유년기 경험 탐색 등 다양하

였다.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은 연구대상자에게 시행한 중재의 효과나 적용가능성 평가를 위해 혼합연구방법을 이용한 연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정신간호학회지에도 다양한 주제로 시도되어 학문과 실무 발전에 의미 있는 질적 연구가 양적으로 풍부해져야 할 것이다.

연구방법론은 현상학적 연구(24편, 48.0%)가 가장 많았고, 분석방법은 Colaizzi의 방법을 활용한 경우가 13편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상담학 관련 질적 연구 분석 논문[2]에서는 근거 이론방법, 합의적 질적 연구, 현상학 등의 순으로 다양한 연구방법이 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최근 국내외 다른 학문분야의 현상학 연구들[9-11]은 Colaizzi 등 다수 저자의 분석방법들을 수정하여 정리한 Moustakas[12]의 단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주제나 목적에 따라 연구방법이 부합되어야 하는

Table 4. Trustworthiness of Qualitative Research

(N=50)

Variables	Categories	n (%)
Terminology	Validity & Reliability	11 (22.0)
	Validity	11 (22.0)
	Rigor	6 (12.0)
	Trustworthiness	2 (4.0)
	Reliability	1 (2.0)
	Mixed	4 (8.0)
	Not presented	15 (30.0)
Techniques for trustworthiness [†]	Member check	22 (44.0)
	Consultation to professionals	22 (44.0)
	Controlling preconception	12 (24.0)
	Peer discussion	11 (22.0)
	Conforming procedure	10 (20.0)
	Building relationship	5 (10.0)
	Presenting verbatim	5 (10.0)
	Diverse sample and data	4 (8.0)
	Recording interview	4 (8.0)
No. of techniques being used	None	15 (30.0)
	1	6 (12.0)
	2	13 (26.0)
	≥ 3	16 (32.0)
Citations for trustworthiness	Guba & Lincoln (1985, 1989)	7 (14.0)
	Maxwell (1996)	1 (2.0)
	Sandelowski (2000)	1 (2.0)
	Not identifiable	3 (6.0)
	Not mentioned	38 (76.0)

[†] Items in category are not mutually exclusive.

것은 당연한 것이나 한쪽으로 편중된 연구방법으로 발견되는 지식체에는 한계가 있을 수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고 타학문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분석절차들을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평가해 보는 것은 간호학 질적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상학 연구로 시행된 경우 연구주제, 목적과 철학적 입장, 분석방법의 부합성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현상학 연구는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기술에 초점을 두어 기존 연구에서 잘 밝혀지지 않았던 현상의 본질을 발견하는데 유용한 경험적, 초월론적 현상학[13]과 경험에 대한 기술과 경험의 의미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 과정, 현상의 맥락적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해석학적 현상학으로 구분된다[13,14]. 같은 현상학적 분석방법이라 하더라도 연구주제와 목적에 맞는 구체적인 질적 분석방법을 선정하는데 보다 신중해야 의미 있는 연구결과의 산출을 이룰 수 있다[2]. 그러나 분석대상 논문들의 연구주제나 목적의 기술내용은 거의 유사하여 방법론과의 부합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편이었다.

근거이론연구를 시행한 논문은 10편으로 이중 9편에서는

Strauss와 Corbin의 분석방법을 적용하고 있었다. Strauss와 Corbin의 분석방법은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그 지침이 구조화 되고[14], 독특한 분석절차가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과정과 그에 개재하는 요인들을 비교적 가시적으로 잘 잡아서 결과물로 보여주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이 때문에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한 논문들에서는 연구제목에 ‘과정’, ‘적용’ 등의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다만 Strauss와 Corbin의 코딩 패러다임이나 중심현상을 둘러싼 범주들의 유형을 도출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은 결핍되었고, 더욱이 1편의 논문에서는 분석방법이 언급조차 없었다.

Q 방법을 적용한 논문은 7편으로 분석절차는 거의 일치하였다. Q 방법은 참여자의 주관적 관점 탐색과 의미 추구, 범주와 주제의 확인, 참여자와의 협력적인 몰두 등의 원칙을 갖는다는 점에서 다른 질적 연구와 유사하지만[15], Q 분류를 위한 진술을 선택하는 과정은 연구자가 수행하며, 전통적으로 질적 연구가 현장이나 삶의 장면에 강렬하고 오랜 접촉을 통해 풍부하고 생생한 자료를 생성시켜 독자에게 ‘짙은 묘사’(thick description)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관점[16]에서는 부족하

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Q 방법론은 ‘qualiquantilological’이라는 용어로 지칭되면서 하이브리드 접근방법[17]으로 그 장점이 인정되는 바, 인문학적이고 자연과학적인 특성을 모두 갖춘 간호학에서 Q 방법론과 같은 혼합연구의 활용은 질적 연구의 진실성을 이성주의 과학자나 임상가에게 설득시키고 이를 통해 질적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결과에서 Q 방법론을 적용한 논문들의 경우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전략들이 거의 제시되지 않았던 점은 재고하여야 할 문제라고 본다.

내용분석을 활용한 논문은 총 4편이었고, 주제분석은 2편이었다. 연구방법을 ‘주제내용분석’이라고 기술한 1편의 연구에서 참고문헌은 내용분석에 관한 것이었다. 질적 연구에서 ‘주제분석’이라는 연구방법의 등장은 드물고[7], 주제분석이 특징한 연구방법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질적 연구방법에서 질적 정보를 질적 자료로 변형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과정 중의 하나[18]라는 관점에서 주제분석을 연구방법으로 표기하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에 출판된 2편의 논문에서 Problem-Oriented analysis를 사용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분석절차를 고찰할 수 있는 출판된 참고문헌은 없었다. 분석절차는 일반적인 질적 연구 분석 방법과 유사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철학적 근거를 토대로 연구가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2006년 이후 이 방법을 활용한 논문은 없었다.

연구대상자는 정신장애인이 15명(30.0%)으로 정신간호학회지의 논문분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비중이 낮았고, 이중 대부분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70.0%의 논문에서 심층면접만을 자료수집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결과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논쟁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회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심층면접이 매우 유용한 자료수집방법임에는 분명하나[2], 심층면접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자료수집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신간호학이라는 학문 정체성의 핵심에 정신장애인의 간호가 있음을 재고한다면 연구자들은 자료수집의 삼각화 등 좀 더 적극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양적 연구로서 밝혀내기 어려운 정신장애인의 삶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동시에 질적 연구의 타당도도 확보함으로써 유용한 질적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여자 수는 20명 미만인 경우가 38편(76.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설문지나 글쓰기를 사용한 경우나 Q 방법을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10명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Q 방법에서 P 표본의 규모는 연구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명 내외가 적당하다고 하였으나[19], 본 연구결과에서 P 표본은 6편에서 2~30명 내외였고, 1편만 56명이었으며, P 표본의 선정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1편이었다. 질적 연구에서 참여자의 숫자가 큰 의미는 없으나 연구 참여자 수가 너무 적으면 편협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많으면 심도 있는 분석을 하기 어렵다는 점[20]을 고려할 때 참여자 수도 어느 정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질적 연구의 표본추출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참여자 선정이유, 과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술을 독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적 연구에서 참여자 선정은 분석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선정 목적이나 기준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기술되어야 하므로[16,20], 다른 분과학문에서는 객관적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특성을 가진 참여자를 확인하는 방법[2]까지 제안되고 있다. 또한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진행에 따라 참여자 선정이 발전해 가야 한다[16].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참여자의 선정목적, 표집절차, 연구진행에 따른 참여자 선정의 변화에 대해 언급한 논문은 없었으며, 연구결과 부분에서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간략히 제시하는데 그쳐 참여자의 선정목적이나 기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연구결과를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 15편(30.0%)의 논문에서 연구의 타당도나 신뢰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Q 방법론을 적용한 대부분의 논문들이 이에 해당되었다. Q 방법론에서 타당도의 개념을 의미 없다고 보기도 하지만 그 위협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 Q 분류의 과정에서는 신뢰도 검증이 필수적[19]이지만 이를 실시한 논문은 없었다. 타당도를 언급한 논문들에서는 타당도를 표현하는 용어가 다양하였다. 이성주의(양적) 패러다임에서 사용되는 ‘엄정성’에 상응하는 용어로 자연주의(질적) 패러다임에서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아우르기 위해 Guba가 ‘진실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12], 이는 다른 분과학문의 질적 연구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본 연구에서 ‘진실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논문은 2편(4.0%)이었고, 상당수의 논문에서 ‘타당도’, ‘신뢰도’, ‘엄정성’, ‘적합성’ 등을 혼돈스럽게 표기하고 그 의미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분과학문 내, 그리고 분과학문 간의 원활한 학문적 교류를 위해서 가능한 다수 학계에서 수용되는 용어와 의미를 일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중 연구참여자의 확인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연구의 진실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12]도 있다.

또한 교수나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가의 선정기준, 자문의 목적, 과정, 결과의 반영 등에 대한 내용은 부재하였고, 연구결과에 치중하여 ‘확인’을 받았다’, ‘검증을 받았다’ 등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자료의 신빙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전략인 충분한 시간과 지속적인 관찰을 시행한 것으로 기술한 논문은 없었고, 논문에서 제시된 심층면접(실제로는 면담이라고 표현한 논문이 대다수임)의 시간이나 횟수를 감안하여도 충분한 시간과 지속적인 관찰에 의한 자료수집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자료수집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이것이 각 대상이나 조사 세팅에서의 자료수집기간인지, 전체 참여자의 자료수집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인지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의 진실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전략으로 합의해 온 예외적 또는 반대 사례 분석[14,21,22]을 시행한 연구는 1편도 없었다. 대부분의 논문에서 진실성 확보전략은 1~2가지의 전략들을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기술하고 있었는데 추후에는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고 그 유용성을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보고들이 필요할 것이다.

진실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수의 전략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14],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1개의 전략만이 제시되거나 아예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21편(42.0%)으로 거의 절반에 다다랐다. 또한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를 위해 사용된 증거의 근거를 제시한 경우는 9편(18.0%)에 불과하였는데, 이중 7편은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Lincoln과 Guba의 준거를 근거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준거는 지나치게 실증주의적 관점에 근거하고 있고[1], 준거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21]을 받고 있어 새로운 준거를 적용해 보는 시도가 필요하겠다.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Lincoln과 Guba가 1981년에 발표한 준거[21]를 사용하면서 Lincoln과 Guba의 1985년 문헌[22], Guba와 Lincoln의 1989년 문헌[23]을 제시한 오류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학회지의 수준이 내용 뿐 만 아니라 형식적인 완성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독자들의 학회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근거 제시에 대한 연구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적 연구의 타당도에 대한 관점들이 다르고[14], 그 준거들이 혼돈스러워 연구의 진실성을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음[21]에도 불구하고 패러다임에 관계없이 연구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질적 연구가 건강관리, 건강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로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통찰 뿐 아니라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논리적인 방법론과 결론을 보여주어야 한다[3,7]. 이를 위해 연구자는 진실성 확보 전략들이 방법론적 일관성, 표본, 자료수집, 자료에 근거한 반복적인 가설 수정 등 전체 연구과정을 어떻게 끌고 왔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7,14,21]. 그러나 국내의 많은 질적 연구 논문이 진실성 준거를 실천하지 않은 채 발표되고 있다는 지적대로[1]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진실성 준거와 이를 위한 전략, 그 실천방법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예를 들면 Moerer-Urdahl과 Creswell[24]의 논문에서는 판단중지를 어떻게 고려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들에서는 연구자의 선입견 등을 배제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진실성 확보는 연구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임상가나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신뢰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제한을 줄 수 있다. 진실성 확보는 전략의 활용여부가 아니라 연구자가 연구 전반에 걸쳐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드러내어 독자들이 이를 근거로 연구결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정신간호학 분야에서 최근 10년 간 발표된 질적 연구논문을 분석하여 다양한 시사점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정성적인 분석 내용은 출판된 논문내용만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분석하였으므로 저자가 논문에 드러내지 않은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거나 연구자 1인에 의한 분석으로 인해 분석 내용의 타당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연구주제, 목적과 연구방법을 위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 논의, 연구의 의의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제한된 분석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학 내 타 전공분야 또는 다른 분과 학문에서 발표된 질적 연구들과 비교분석하여 정신간호 질적 연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재 간호학 분야별 학회지에서 활용되고 있는 질적 연구의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동일한 주제로 여러 편의 논문이 발표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자료를 유용한 지식체로 변형하기 위해 질적 메타분석 등의 연구가 시도되기를 제언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았으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면접자의 지위문제나 포커스 집단을 이용하여 성적 내용의 자료를 수집한 방법은 연구의 진실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대부분 연구자와 참여자가 대면을 하여 참여자의 삶

의 세계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는 질적 연구의 특성을 감안할 때 향후 이에 대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

건강분야에서 질적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신간호학회지에서 질적 연구의 양적 증대는 뚜렷하지 않았다. 연구대상자와 연구주제는 매우 다양한 반면 연구를 이끌어 간 접근방법에 대한 언급과 철학적 가정에 대한 확인이 부족하였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결함이 발견되어 독자들이 연구결과를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였다. 정신간호학의 학문 발전과 임상실무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질적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타당하고 논리적인 방법론을 엄격하게 적용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Kim Y. Qualitative methodology II: methods, Seoul: Academy Press; 2013. 679 p.
- Park S. The trends of qualitative research on counseling psychology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2;13(2): 953-77. <http://dx.doi.org/10.15703/kjc.13.2.201204.953>
- Daly J, Willis K, Small R, Green J, Welch N, Kealy M, et al. A hierarchy of evidence for assessing qualitative health research. J Clin Epidemiol. 2007;60(1):43-9. <http://dx.doi.org/10.1016/j.jclinepi.2006.03.014>
- Sandelowski M. Using qualitative research. Qual Health Res. 2004;14(10):1366-86. <http://dx.doi.org/10.1177/1049732304269672>
- Kim YK, Hwang SY, Shin SJ.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published b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Korean J Adult Nurs. 2011;23(6):633-41.
- Na J. A comparative analysis of validity issues in qualitative research. J Educ Eval. 2006;19(1):265-83.
- Sandelowski M, Barroso J. Writing the proposal for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project. Qual Health Res. 2003;13(6):781-820. <http://dx.doi.org/10.1177/1049732303013006003>
- Lee YH, Lee YM, Kwon HJ. Review: Trends analysis on research articles in the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Korean J Med Educ. 2012;24(4):287-99. <http://dx.doi.org/10.3946/kjme.2012.24.4.287>
- Kim S, Kim S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work: family compatibility of dual-earner families. Fam Environ Res. 2013; 51(3):355-70. <http://dx.doi.org/10.6115/fer.2013.51.3.355>
- Kim Y. Understanding family caregivers' experiences of living with dementia: a transcendental phenomenological inquiry. J Korea Gerontol Soc. 2007;27(4):963-86.
- Rush P. The experience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nurses responding to women with postpartum depression. Matern Child Health J. 2012;16(2):322-7. <http://dx.doi.org/10.1007/s10995-010-0688-2>
- Moustakas C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1994. 192 p.
- Lopez KA, Willis DG. Descriptive versus interpretive phenomenology: their contributions to nursing knowledge. Qual Health Res. 2004;14(5):726-35. <http://dx.doi.org/10.1177/1049732304263638>
- Creswell JW.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3rd e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2012. 448 p.
- Cordingley L, Webb C, Hillier V. Q methodology. Nurs Res. 1997;3(3):3-45.
- Miles MB, Huberman AM. Qualitative data analysi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1994. 338 p.
- Stenner P, Rogers RS. Q methodology and qualiquantology. New York: Psychology Press; 2004. 251 p. (Todd Z, Nerlich B, McKeon S, Clarke DD, editors. Mixing methods in psychology: the integration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of theory and practice).
- Boyatzis RE. Transforming qualitative information: thematic analysis and code development.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1998. 184 p.
- Kim H. Q methodology: philosophy, analysis, and application. Seoul: Communication Books; 2008. 499 p.
- Lim S. An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used in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Sociology of Sport. J Korean Soc Sports. 2004;17(3):253-67.
- Morse JM, Barrett M, Mayan M, Olson K, Spiers J. Verification strategies for establishing reliability and validity in qualitative research. Int J Qual Methods. 2002;1(2):13-22. Available from: <http://ejournals.library.ualberta.ca/index.php/IJQM/article/view/4603/3756>
- Lincoln YS, Guba EG.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1985. 416 p.
- Guba EG, Lincoln YS. Fo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1989. 294 p.
- Moerer-Urdahl T, Creswell JW. Using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to explore the "ripple effect" in a leadership mentoring program. Int J Qual Methods. 2004;3(2):19-35. Available from: <http://ejournals.library.ualberta.ca/index.php/IJQM/article/view/4470/3594>

A List of Qualitative Research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4~2013)

Author (s) (year)	Title of study
Jin J, Yoo J. (2013)	Psychiatric patients' experiences of being restrained: a phenomenological study
Ko MH, Lee M, Yi M. (2013)	A phenomenological study on lived experience of suffering in suicide attempters
Kim HJ. (2013)	Work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community mental health nurses in South Korea: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Kim B. (2013)	Action research for parent empowerment of married immigrant women
Kim MJ, Kim SJ. (2012)	Preferences in mental health services for persons with mental illnesses: Q-methodological approach
Rho I, Cho S. (2012)	Causes of burnout among South Korean counselors working with North Korean refugees: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Kim GM, Park E, Lee YS, Lee J. (2012)	Resilience of families with elderly patients with dementia
Yun JS, Kim KB. (2012)	Stigma in parents of a child with mental illness
Panuncio RL, Bae J. (2012)	The adjusting process of foreign wives married to Korean husbands
Ko HS, Hah YS. (2012)	Types of physical restraint experience in mentally ill persons: Q methodological approach
Kim J, Shin G, Park YM, Lim EJ, Nam HA. (2011)	Experience of people living with HIV working as caregivers for AIDS patients
Lee KS, Park EJ, Kim HJ, Ahn HR. (2011)	An exploration on the stress of Korean graduate nursing students: using of focus group research method
Song S, An H. (2011)	Experience of child-rearing of Filipino married immigrant women
Lee OJ, Im SB, Park HS. (2011)	Unresolved suffering lived experiences of college students
Bae J, Panuncio RL. (2010)	Embracing new lives as Korean immigrants in Canada: a grounded theory
Kim HK, Lee OJ. (2010)	Lived experience of psychological suffering among the North Korean refugees: applied to Parse's human becoming research methodology
Kim MH, An ES, Kang EH. (2010)	Attitude of persons with an mental disability to marriage: Q methodological approach
Kim EH, Lee CS. (2010)	The unwed teenage mothers' lived experience of hope in a group home: using Parse's research methodology
Min So. (2009)	Experience of reading book by university student of nursing
Bae J. (2009)	Experience of the Korean immigrant population in the US: a phenomenological approach
Kim HJ. (2009)	Meaning of recovery from mental illness: findings of a qualitative study
Byun EK, Jun S. (2009)	Family support experience on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y
Lee KS. (2009)	The coping process of anger in people with hypertension
Seo J, Jun S, Byun E, Kim T, Lee C. (2009)	Content analysis of the experiences of smoking and smoking cessation in schizophrenic patients
Joo HJ (2009)	The experiences of the families of persons with AIDS
Chung BY, et al. (2009)	Recognition of alcohol in alcoholic inpatients
Mun MS. (2008)	Critical thinking contents in narrative writing experiences
Min S. (2008)	Experiences of volunteers in a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Lee KS, Min YC. (2008)	Psychological adjusting process to diseases in people with chronic illnesses
Lee JS, Ha J. (2008)	The experience of dementia's families's defecation care experience
Joo HJ. (2008)	The coping behaviors of the people with HIV: focusing on the male homosexuals
Park J, Choi M. (2007)	The lived experiences of the middle aged women's crisis
Lee Y. (2007)	The lived experiences of the middle-aged women's anger
Ahn HR. (2007)	The experience of Korean-American women's acculturative stress
Oh J, Lee I. (2007)	A study of paramedics' burnout : Q-methodological approach
Choi Y, Pang KY, Kim S. (2006)	A transcultural model of hwa-byung: a grounded theory
Kim YB, Lee JS. (2006)	Experiences of subliming of the bereaved family due to suicide
Min S. (2006)	Adjustment experiences of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Kim S. (2006)	Drinking experiences of women alcoholics: a feminist approach
Yeu K, Lee M. (2006)	The homosexual identity developmental process and mental health in Korean gay men
Cho Chung, H. (2006)	Seriously mentally ill Korean immigrants: the essence of their lived experience
Lee M, Lee M. (2006)	Sexual behaviors related to alcohol consumption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Kim M. (2006)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writing about the lived experience of the adult-children living with disabled-parents
Park J, Im MY. (2005)	The lived experiences of auditory hallucination of the persons with chronic schizophrenia
Lee M. (2005)	Experiences associated with drunk driving among DWI offenders
Lee JS, Kim NJ, Doo HJ, An JY, Lee YK. (2005)	Adaptation experience of male students in department of nursing
Park IS, Kwak MS, Lee JA. (2004)	A study on meaning of the elderly for dementia center workers
Suh M. (2004)	A study on the recognition for psychiatric patients of nursing students
Kim HY, Lee CS. (2004)	The lived experience of auditory hallucination of the persons with schizophrenia
Gong SJ, Lee CS. (2004)	The lived experiences of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